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2024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열린다. 통합우승팀 KIA에서는 10명이 후보로 이름을 올린 가운데 '해결사' 최형우(왼쪽)와 김도영이 각각 최고령 수상, 최다득표에 도전한다. <KIA 타이거즈 제공>

KIA '신·구 해결사' 최고의 황금장갑 품는다



최형우 '최고령'·김도영 '최고득표율' 도전
오늘 시상식...김선빈 등 KIA 10명 후보에

KIA 타이거즈의 '신구 해결사'가 최고 득표율과 최고령 기록과 함께 골든글러브에 도전한다. 2024시즌 대미를 장식하는 '신한 SOL뱅크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1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다.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를 가리는 이번 시상식에서 만들어질 '기록'에 관심이 쏠린다. 올 시즌 통합우승에 빛나는 KIA는 내일·양현종·전상현·정해영(이상 투수), 김선빈(2루수), 김도영(3루수), 박찬호(유격수), 소크라테스·최원준(이상 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 등 LG·KT와 함께 가장 많은 10명의 후보를 배출했다.

'V11'을 이뤘던 2017시즌 KIA에서는 투수 양현종, 2루수 안치홍, 유격수 김선빈, 외야수 최형우·버나디나 등 총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시 시상대에 올랐던 양현종, 김선빈, 최형우가 'V12' 시즌 다시 한번 골든글러브를 노린다. 이번에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수상에 도전하는 최형우는 '최고령 골든글러브' 기록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최형우가 이번 시상식에서 이름이 불리면 2022시즌 지명타자 부문 이대호(전 롯데)가 달성한 40세 5개월 18일을 넘어 최고령 수상자가 된다. 시상식이 열리는 12월 13일 기준 최형우는 40세 11개월 27일이다.

최형우와 함께 또 다른 해결사로 활약한 김도영은 첫 수상과 최고 득표율을 노린다. 김도영은 이번 겨울 모든 시상식의 주인공이었다. 마지막 시상식에서 김도영은 '최고 득표율'에 도전한다. 지난해 시상식에서는 LG 오스틴이 총 291표 중 271표를 획득해 93.1%의 최고 득표율로 '황금장갑'을 품었다. 역대 최고 득표율 기록은 2020시즌 당시 NC 소속이었던 양의지가 가지고 있다. 당시 양의지는 총 342표 중 340표를 얻어, 99.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빛나는 2위'가 됐던 유격수 박찬호는 첫 수상을 노린다. 2022·2023시즌 연속 LG 오지환의 차지가 됐지만 이번 겨울에는 박찬호와 함께 SSG 박성현, 삼성 이재현, NC 김주원 등 젊은 유격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골든글러브 시상식 '단골'들의 수상도 관심사다. 현역 KBO 리그 선수 중 5개 이상의 골든글러브

를 보유하고 있는 선수는 두산 양의지(9회), SSG 최정(8회), KIA 최형우(6회), 삼성 강민호(6회)·박병호(6회), NC 손아섭(6회), LG 김현수(5회) 등 총 7명이다. 이번 시상식 후보에는 최정, 최형우, 강민호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정이 수상하게 되면 양의지와 함께 통산 최다 수상 공동 2위가 된다. 3루수 부문 단독 1위로도 올라서지만 올 시즌 김도영이라는 압도적인 후보가 있다. 강민호가 2021시즌 이후 3년 만에 포수 부문 수상에 성공하면, 김동수(전 히어로즈)와 함께 포수 부문 공동 2위가 된다. '빅리그' 진출을 예고한 키움 김해성은 4시즌 연속 수상을 기대하고 있다. 2021시즌 유격수 부문에서 처음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김해성은 2022년과 2023년에는 2루수 골든글러브를 품어 안았다. 김해성이 다시 한번 이름이 불리면 역대 14번째

4시즌 연속 골든글러브 수상자가 된다. 또 1986~1988시즌 김성래(당시 삼성) 이후 36년 만에 3시즌 연속 2루수 부문 수상 선수로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편 골든글러브 역대 최다 연속 수상자는 1997시즌부터 2003시즌까지 7시즌 연속으로 1루를 차지한 이승엽(전 삼성)이다. 외국인 선수들의 최다 수상 도전도 이뤄진다. 이번 골든글러브 후보로 투수 부문 12명, 1루수 2명, 외야수 4명 등 총 18명의 외국인 선수가 이름을 올렸다. 앞서 가장 많은 외국인 선수가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2019시즌에는 두산 린드블럼(투수), 키움 샌즈·KT 로하스(이상 외야수), 두산 페르난데스(지명타자) 등 4명이 나란히 수상에 성공했다. 역대급 활약을 선보인 외국인 선수가 많았던 2024시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선수들 '결혼 시즌'

이민기·여봉훈...육태훈 분석관·신용섭 트레이너도

2024시즌을 마무리한 광주FC 선수단이 '결혼의 달'을 보낸다. 이민기·여봉훈과 육태훈 분석관·신용섭 트레이너가 '새신랑'이 된다. 광주FC 부주장인 이민기가 먼저 결혼식의 스타트를 끊는다. 이민기는 14일 오후 12시 서울 그랜드힐컨벤션 플러리아홀에서 강민지씨와 화약을 밝힌다.



광주FC 선수단이 12월 '결혼의 달'을 보낸다. 결혼식을 앞둔 이민기(시계 방향으로), 여봉훈, 신용섭 트레이너, 육태훈 분석관. <광주FC 제공>
15일에는 광주의 든든한 지원군인 육태훈 분석관과 신용섭 트레이너가 나란히 식을 올린다. 육태훈 분석관은 오전 11시 30분 안산 빌라드지에서 설은영씨와 결혼식을 올린다. 이어 오후 3시 30분 신용섭 트레이너가 서울 더컨벤션 반포에서 김수민씨와 웨딩마치를 올린다. 미드필더 여봉훈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엘리어나호텔 컨벤션홀에서 조혜원씨와 백년가약을 맺는다. 제2의 인생을 앞둔 광주FC의 새신랑들은 "평생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를 만나게 돼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 같다. 믿음직한 남

인권·일정 논란 사우디, 2034년 월드컵 단독 개최지 확정

FIFA 의결 절차 남아

인권과 일정 등 여러 논란에도 사우디아라비아가 2034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단독 개최지로 확정됐다. FIFA는 11일(현지시간) 211개 회원국이 화상회의로 참가한 임시 총회에서 2030년과 2034년 월드컵 개최지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2030년 대회는 유럽의 스페인·포르투갈, 아프리카의 모로코 3개국이 공동으로 개최하고 2034년 대회는 사우디에서 열린다. 두 대회 모두 단독 후보여서 사실상 개최가 이미 확정된 상황이었다. 2030년 대회의 경우 FIFA는 지난해 10월 평의회에서 3개국을 공동 개최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월드컵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남미의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도 총 104경기 중 한 경기씩을 치르기로 해 3개 대륙 6개국에서 대회가 열리게 됐다. 월드컵의 시작인 1930년 제1회 대회 개최국 우루과이에서는 100년 전 대회 경기장이었던 몬테비데오의 에스타디오 센테나리오에서 개막전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로써 월드컵은 북중미의 미국·캐나다·멕시코가 함께 여는 2026년 대회에 이어 두 대회 연속 3개국 이상이 공동 개최한다. 2034년 대회의 사우디 개최도 FIFA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예초 공동 개최 의사를 밝힌 호주·인도네시아와 사우디 간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였다.



2034년 월드컵 개최국으로 확정된 사우디아라비아. /연합뉴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가 사우디 지지 선언하고, 이후 호주도 대회 유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발표하면서 후보가 사우디만 남았다. 여성 인권, 언론 탄압 문제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는 사우디가 축구 '스포츠투스'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FIFA는 결국 사우디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의 노동 인권 및 스포츠 책임자인 스티브 쿡은 "적절한 인권 보호가 마련되지 않은 채 2034년 월드컵 개최권을 사우디에 주기로 한 FIFA의 '무모한 결정'은 많은 생명을 위협에 빠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우디의 개최로 아시아에서는 2002 한일 대회와 2022년 카타르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통산 세 번째로 월드컵이 열린다. 보통 월드컵은 여름인 6~7월에 개최되지만, 중동의 더위 때문에 사우디 대회는 겨울에 치러질 전

망이다. 역대 최초로 중동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도 비슷한 사정 탓에 그해 11~12월 치러졌다. 다만, 사우디는 이미 2034년에 하계 아시안게임도 유치해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라 월드컵은 연초인 1월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2034년 2월 미국 솔트레이크에서 동계 올림픽이 개막한다는 것이 걸림돌이었는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크리스토프 두비 수석국장이 이달 초 "현 단계에서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을 병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상업적인 측면을 포함한 모든 관점에서 볼 때 사실상 위험은 없다"고 밝혀 사우디의 부담을 덜어줬다. 그러나 겨울은 프로축구 시즌이 한창인 나라가 많아서 한 달 보름 가까이 시즌을 중단해야 하는 유럽 등을 중심으로 일정에 대한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